

지역 매 아리

# 완주 소규모지역개발 조기 착공 추진

## 김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 김제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김제시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6개 분야의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의 일정으로 시내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선정 기준, 점검방법 등을 크게 개선하고 점검자와 확인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점검실명제 강화를 위해 점검자를 유관기관 등 민간전문가 및 민간예찰단 14명으로 구성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행안부가 점검분야를 지정하던 방식이 아니라 시설 주관부서와 시민의 설문 및 전수조사 등을 거쳐 재난 위험 및 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등을 선정한 것으로 김제시는 약 490개소를 대진단 점검시설로 선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영농기 이전 완료 목표... 175개 사업 추진

완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을 조기 착공한다.

20일 완주군은 군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및 읍면 긴급현안 사업비 등을 포함해 약 64억원이 투입된다.

마을안길 71건, 배수로 31건, 세천 정비 및 기타시설 정비 등 총 175개

의 사업이며, 3월초 착공해 영농기 이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초 대상사업 확정 후 실시계획을 완료했으며, 해빙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포장, 배수로개선 등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주민에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선정과 실시계획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다.

완주군은 그동안 2017년에 269건 99억, 2018년에 196건에 72억원의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덕준 공영개발과장은 "완주군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적극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정기총회서 새 출발 다짐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민의 소확행을 꿈꾸고 지지하는 사단법인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가 최근 (구)예술회관 2층 문화사랑방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진금도 전 이사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8년도 감사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와 신임 임원 선출, 정관개정 등 중요한 안건으로 열띤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제5대 이사장으로 청송소리동호회 정미경 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외에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임원선출과 정관 개정, 2019년도 사업계획도 공유하며 알차게 진행되었다.

한편 전통문화에서 가야금병창 동호회를 이끌어 오고 있던 정미경 신임 이사장은 가야금, 향피리, 색소폰 등 다재다능한 문화예술 동호인으로

서 "취미활동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며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아름다운 만남이 더욱 활성화 되고, 그 매개체인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취임사를 했다.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이면 누구나 등록하여 함께 할 수 있다. 현재 음악·전통·무용·공예·서예·미술·문학·사진 등 79개 동호회 1,422명의 회원이 공연과 전시 등 발표회 뿐 아니라 연중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재능 나눔과 동호회 간, 지역 간 교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에 운영기관으로서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경력을 활용하여 벽골제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청년농업인

#### 생생동아리 사업지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소외 및 세대갈등 등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상호 간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동아리 신청희망자 52명을 대상으로 '생생동아리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10명 내외로 지역별, 품목별로 동아리를 구성하게 되는 데, 김제시에서는 6개를 만들 예정이다.

선발된 6개 동아리에게는 동아리별로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월 1회 이상 구성원끼리 직접 만나 영농 정보교류, 선배농업인 초청강연 등 학습활동,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과소화·고령화와 같은 농촌의 지속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는 청년농업인들이 지역간, 계층간 소통 부족으로 농촌에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 청년농업인 상호간 자유롭게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영농 초기에 겪는 소외감, 고립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초등 학력인정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 "늦었다고 포기했으면 오늘의 기쁨 없었을 것"

### 완주군 진달래학교 졸업식... 어르신 42명 초등 학력인정 졸업장 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초등 학력인정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20일 완주군은 문화강좌실에서 졸업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진달래학교 학력인정 졸업식'을 열었다.

완주군 진달래학교는 '진짜 달콤한 내인생을 꿈꾸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 경로당이나 읍·면사무소 등에 문해강사를 파견해 한글 기초반, 초등 학력인정반, 초등 심화반 등을 운영하는 학교다.

진달래학교의 졸업식은 지난해 이서 정농경로당반 11명의 졸업식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졸업식에는 삼례읍사무소반

12명, 고산면사무소반 19명, 비봉면사무소반 11명 등 총 42명이 배출됐다. 졸업생 3명이 개근상을 수여받았으며, 최숙자(삼례읍·고산면반), 이신희(비봉면) 반문해교사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유한순(삼례읍), 인금순(고산면), 최정순(비봉면) 학습장별 대표 3명에게는 모범학습자 상장을, 진달래학교 학력인정반 최고령인 소재순(91세·고산면)에게는 진달래 으뜸상이 수여됐다.

졸업식에는 졸업생을 비롯해 가족들이 참석해 늦깎이 졸업을 축하했다.

졸업생들의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자 현대자동차 전주공

장에서는 성인문해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책가방 282개와 경로당반 좌식의자 110개를 전달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졸업생 유한순(76세)씨는 졸업식 답사를 통해 "비록 배움에 있어서 많이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다"며 "공부하는 걸 포기했으면 오늘 이 기쁨은 없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진짜 달콤한 내 인생을 꿈꾸는 진달래학교에서 배움과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학력인정 졸업장까지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졸업생들의 열정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전기울타리 설치 등

완주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일 완주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완주군 관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작지로 피해정도, 재배작목, 공동설치, 예방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휴경지 및 향후 5년 이내 농작물 외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작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253만원(400m기준)을 한도로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태양전지식 전기울타리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발생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지원한다. 피해정도, 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반영해 산정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제 100주년 3.1절 맞아 태극기 물결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오는 3월 1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 상징인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통해 범시민 화합과 함께 대국민 경축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최근 김제시청 본관 건물 외벽에 '3.1운동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김제시민이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로 대형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어 25일부터는 시내 시가지 3개 구간, 12개 노선 가로변과 19개 읍면동 시범 가로변 등에 태극기 가로기를 설치해 지역 곳곳에 제100주년 3.1절을 기념하는

태극기 물결이 넘실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별로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적극 홍보하고 마을·아파트·상가 밀집지역 캠페인 실시, 시내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범시민 태극기 달기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28일에는 시청 현관 앞에서 차량용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관내 택시, 야쿠르트 전동차 등에 태극기를 부착해 3월 15일까지 운행하며 태극기 달기 대시민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